



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High School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on Drug Abuse

저자
(Authors) 양태경, 김정남
 Tae Gyung Yang, Chung Nam Kim

출처
(Source) [한국모자보건학회지 3\(2\)](#), 1999.7, 219–232 (14 pag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3\(2\)](#), 1999.7, 219–232
(1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모자보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570766>

APA Style 양태경, 김정남 (1999). 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3(2), 219–232.

이용정보
(Accessed) 계명대학교
 114.71.5.213
 2016/07/05 13:5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양태경 · 김정남¹

양북초등학교, 계명대학교 간호대학¹

=Abstract=

High School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on Drug Abuse

Tae Gyung Yang, Chung Nam Kim¹

Yang Buk Elementary School, Department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¹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12th grad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on the abuse of drugs, to provide some basic data of the health education for them to obtain proper knowledge and attitude against drugs, and eventually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ir health.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735 students from ordinary high schools and 482 students from 10 vocational high schools in 23 areas of Kyungbuk province, all of whom were selected randomly, between March 5th and 20th, 1999.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OVA and Turkey test as the result of PC-SAS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Only 51.3% of the surveyed students received some prevention education of drug abuse. They rarely got it in their elementary school days. 54.3% of the educated students learned from their school health nurses. Most of the classes made use of audio-visual materials.

Most of the students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drug prevention edu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urvey, the materials that they took included alcohol 42.1%, smoking 23.3%, stimulants 6.7%, sleeping drug 3.5%, inhalants 1.6%, sedatives 1.5%, narcotics 0.9%, and hallucinogen 0.5%. The first motive of using drugs was curiosity 18.1%, environmental factor 13.0%, and so on.

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ordinary students(27.30 out of 47) and vocational students(21.84) in the average score of their knowledge on drug abuse($p=0.0001$), and between girls(26.08) and boys(24.29; $p=0.0172$).

3. There was a little difference between ordinary students(16.94 out of 42) and vocational students(16.23) in the average score of their attitude on drug abuse($p=0.0230$), and between girls(15.42) and boys(17.76; $p=0.0001$).

4. The average score of knowledge on drugs was higher in proportion to the students' school record($p=0.0001$), the level of satisfaction in their school activities($p=0.0093$), and their recognition of any respectable teacher($p=0.0001$). The students who experienced the prevention education had more specific knowledge on drug abuse($p=0.0001$). The more they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 the more knowledge they obtained($p=0.0001$).

5. The average score of attitude was related to their association with any juvenile delinquent ($p=0.0010$) and their pageants' habitual drug abuse($p=0.0001$). The attitude score and the chance of drug abuse were higher in proportion to their home environment($p=0.0001$), the stern way parents bring up their children($p=0.0412$), their complaint at home($p=0.0001$), and their negligence of the prevention education($p=0.0001$).

Key words : knowledge on drug abuse, attitude on drug abuse

서 론

약물남용은 신체 및 정신건강에 커다란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문제와 법적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야기시키고, 각종 범죄나 비행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강영미 등, 1998).

특히 약물남용에 대한 문제는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와 사회적 건강상태가 상호 연관되기 때문에 간호사는 이로 인한 장애의 증상들을 검토하여 적절한 간호 중재 방안을 마련하고 약물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음주, 흡연 및 약물남용은 한국 사회만의 특수한 현상은 아니고 선진국에서도 성 문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길홍, 1985). 그러나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그리고 약물의 남용이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국가적 차원의 종합 대책이 미흡한 현실이다(진희숙, 1994).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미국은 87.5%의 음주경험이 있는데 비하여, 우리

나라의 91.5%가 음주경험이 있고, 각성제의 경우 우리나라 22.6%, 미국 13.9%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의 각성제 사용률이 미국을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입시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수면억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각성제를 사용한 데서 기인한 심각한 결과로 추정된다(문화체육부, 1996).

1991년 체육청소년부에서 학교 청소년, 소년원생,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의 사용 실태와 약물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약물작용에 대한 지식에 비해 부작용 및 독성에 대한 지식은 낮은 편이었으며, 태도면에서는 청소년의 불안한 감정상태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소야자 등, 1991), 문화체육부(1996) 자료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약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매우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술·담배를 포함한 약물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redisdorf(1989)는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 또래 집단의 압력을 거절하는 기술, 긍정적인 건강에 관계된 태도, 자아개념 증진 등이 약물남용 예방교육에 필수라고 지적하였고, 보건교육은

건강에 좋은 행위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 목적을 성취한 것이며, 지식의 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확립하고, 태도에 따른 건강 행위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가 1989년, 1991년, 1993년, 1996년에 실시되었고(문화체육부, 1996),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고홍경, 1990; 김숙경, 1992; 최한곤, 1992; 김소야자 등, 1993; 이계연, 1994; 이숙련, 1995; 이가언, 1997)는 많지만 대부분이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와 원인분석에 치중되어 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고등학생의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규명한 연구는 학교 청소년, 소년원생,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소야자 등; 1991), 인천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영숙; 1991), 진주시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길은미; 1994)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경상북도 소재 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 분석하여 단계적이며 효과적인 약물남용 예방교육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경상북도 소재 23개 시·군 고등학교 총 199개교 중 교육통계연보에 기재된 학교번호에 의하여 각 시·군 단위로 1개교를 충화 무작위 표출하여, 인문계 13개교, 실업계 10개교를 선정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고등학교의 3학년 중 1개 학급을 편의 표출하여 인문계 학생 755명과 실업계 학생 505명, 총 1,26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인문계 753명(99.7%)과 실업계 495명(98.0%)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받았다. 이 중 응답이 부분적으로 누락되었거나 불확실한 설문지 31부를 제외하고 인문계 735명(97.6%), 실업계 482명(97.3%), 총 1,217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약물남용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 2) 학교 계열별·성별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다.
-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Tukey test를 하였다.
- 4) 가정 환경적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Tukey test를 하였다.
- 5)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에 따른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검증은 t-test를 이용하였다.
- 6) 약물남용 예방교육 중요도 인식에 따른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인문계의 경우 남학생 30.6%(372명), 여학생 29.8%(363명), 실업계의 경우 남학생 22.5%(274명), 여학생 17.1%(208명)로, 인문계가 60.4%, 실업계가 39.6%를 차지하였다.

학교성적은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0.0%로 가장 많았고, 학교생활은 '즐겁다'가 30.5%, '차차 흥미가 생긴다'가 21.6%로 52.1%의 학생이 학교생활이 즐겁고 흥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는 73.6%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존경하는 선생님은 38.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대상자의 가정 환경적 특성은 부모의 91.5%가 습관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의 경제수준은 '보통이다'가 73.1%로 가장 많았다.

표 1.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특성	구분	N (%)
학교계열	인문계 남	372(30.6)
	여	363(29.8)
	실업계 남	274(22.5)
	여	208(17.1)
학교성적	상	149(12.2)
	중	730(60.0)
	하	338(27.8)
학교생활	즐겁다	371(30.5)
	차차 흥미가 생긴다	263(21.6)
	생각 없이 다닌다	422(34.7)
	흥미 없다	106(8.7)
	싫다	55(4.5)
비행친구	유	321(26.4)
	무	896(73.6)
존경하는 선생님	유	470(38.6)
	무	286(23.5)
	생각해 보지 않음	461(37.9)

표 2. 대상자의 가정 환경적 특성

특성	구분	N (%)
부모의 습관적 약물복용 여부	예	104(8.5)
	아니오	1,113(91.5)
가정의 경제수준	잘사는 편이다	67(5.5)
	보통이다	890(73.1)
	약간 가난하다	221(18.2)
	아주 가난하다	39(3.2)
가정 분위기가 냉담하다	자주 그렇다	60(4.9)
	때때로 그렇다	258(21.2)
	별로 그렇지 않다	625(51.4)
	전혀 그렇지 않다	274(22.5)
가정생활에 불만이 많다	자주 그렇다	126(10.4)
	때때로 그렇다	388(31.9)
	별로 그렇지 않다	489(40.2)
	전혀 그렇지 않다	214(17.5)
부모의 양육태도	자주 그렇다	58(4.8)
	때때로 그렇다	195(16.0)
	별로 그렇지 않다	594(48.8)
	전혀 그렇지 않다	370(30.4)
엄하게 자녀를 다스린다	자주 그렇다	99(8.1)
	때때로 그렇다	407(33.5)
	별로 그렇지 않다	553(45.4)
	전혀 그렇지 않다	158(13.0)
신경 쓸 시간이 거의 없다	자주 그렇다	95(7.8)
	때때로 그렇다	265(21.8)
	별로 그렇지 않다	521(42.8)
	전혀 그렇지 않다	336(27.6)

가정 분위기가 냉담하다는 '별로 그렇지 않다' 가 51.4%, '전혀 그렇지 않다' 가 22.5%로 73.9%의 학생이 가정 분위기가 냉담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정 생활에 불만이 많다는 '별로 그렇지 않다' 가 40.2%, '전혀 그렇지 않다' 가 17.5%로 57.7%가 가장 생활에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일관성이 없고 변덕이 심하다'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 가 48.8%, '전혀 그렇지 않다' 가 30.4%로 79.2%가 일관성이 없고 변덕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하게 자녀를 다스린다'에서 '별로 그렇지 않다' 가 45.4%로 가장 많았고, '신경 쓸 시간이 거의 없다'는 '별로 그렇지 않다' 가 42.8%로 가장 많았다(표 2).

2. 대상자의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 및 약물 사용 경험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51.3%로 나타났으며, 교육시기별로 보면 초등학교 시절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은 98.2%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중학교 시절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은 79.3%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교 시절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은 57.8%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제공자는 양호교사가 53.2%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방법은 시청각 매체 이용이 65.9%로 가장 높았다. 학교 외의 다른 기관에서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경우는 96.0%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공식적 교육 이외에 정보를 얻는 곳으로는 TV 및 라디오가 49.5%로 가장 많았으며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51.4%, '약간 중요하다' 26.0%로 나타나 77.4%가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약물사용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로는 술 42.1%, 담배 23.3%, 각성제 6.7%, 수면제 3.5%, 흡입제 1.6%, 신경안정제 1.5%, 마약 0.9%, 환각제 0.5% 순이었다.

약물을 처음 사용한 동기로는 '호기심으로' 18.1%, '분위기 때문에' 13.0%로 나타났다(표 3).

표 3. 대상자의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 및 약물사용 경험

특성	구분	N(%)
N=1,217		
약물남용 예방교육	유 무	624(51.3) 593(48.7)
초등학교	유 무	22(1.8) 1,195(98.2)
중학교	유 무	252(20.7) 965(79.3)
고등학교	유 무	514(42.2) 903(57.8)
교육제공자	양호교사 보건관련과목교사 보건관련과목외교사 외부초청강사 기타	385(33.2) 172(23.8) 70(9.7) 92(12.6) 5(0.7)
교육방법	강의식 시청각 매체 이용 토론 탐구학습 기타	217(29.1) 491(65.9) 21(2.8) 12(1.7) 4(0.5)
학교 이외의 다른 기관 에서 교육받은 경우	유 무 종교단체 사회단체 기타	49(4.0) 1,168(96.0) 17(1.4) 33(2.7) 11(0.9)
공식적 교육 이외에 정보 얻는 곳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전문서적 홍보용 책자 친구 부모님 교사 기타	844(49.5) 318(18.6) 55(3.2) 201(11.8) 74(4.3) 40(2.4) 167(9.8) 7(0.4)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중요도	매우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그저 그렇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626(51.4) 317(26.0) 215(17.7) 41(3.4) 18(1.5)
약물사용 경험	마약 환각제 각성제 수면제 신경안정제 흡입제 술 담배	11(0.9) 6(0.5) 82(6.7) 43(3.5) 18(1.5) 19(1.6) 512(42.1) 283(23.3)
약물을 처음 사용한 동기	분위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외로움을 잊기 위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기타	158(13.0) 220(18.1) 48(3.9) 114(9.4) 29(2.4)

3. 대상자의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마약의 종독성에 대해서 90.1%의 학생이 알고 있었으며, 부작용(81.8%), 독성(71.9%), 습관성(66.0%), 내성(63.3%)의 순서였고, 의학적 용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은 42.7%였다.

환각제의 경우 독성에 대해서 80.7%가 알고 있었으며, 습관성(68.4%), 부작용(66.8), 내성은 56.2%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성제의 경우 부작용에 대해서 54.4%가 알고 있었으며, 습관성(52.4%), 종독성(50.0%), 의학적 용도(44.0%), 내성(41.5%), 독성에 대해서는 38.3%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제의 경우 습관성에 대해서 60.0%가 알고 있었으며, 종독성(54.0%), 내성(42.0%), 의학적 용도(33.1%), 부작용(26.3%), 독성에 대해서는 20.7%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안정제의 경우 의학적 용도에 대해서 54.2%가 알고 있었으며, 습관성(41.2%), 종독성(40.6%), 부작용(36.7%), 독성(36.1%), 내성에 대해서는 35.2%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입제의 경우는 습관성과 독성에 대해서 각각 66.5%가 알고 있었고, 내성(49.0%), 부작용에 대해서는 47.6%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의 경우 내성에 대해서 72.6%가 알고 있었으며, 부작용(71.8%), 종독성(68.5%), 습관성(62.9%), 독성(45.4%), 의학적 용도는 31.3%로 나타났다.

흡연의 경우는 독성에 대해서 82.9%가 알고 있었고 습관성(68.8%), 내성(52.8%), 부작용은 18.0%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해독의 경우는 감염에 대해서는 85.5%가 알고 있었고, 면역력에 대해서는 61.1%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제재에 관한 인식도를 알아본 결과 미성년자 금지에 대해 78.5%, 불법, 정역에 대해 58.9%, 치료 보호에 대해 47.7%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는 '인생을 살다보면 약물을 사

표 4. 대상자의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

N=1,217

구분	내용	정답N(%)	오답N(%)
마약	의학적 용도	520(42.7)	697(57.3)
	중독성	1,097(90.1)	120(9.9)
	습관성	803(66.0)	414(34.0)
	내성	770(63.3)	447(36.7)
	부작용	995(81.8)	222(18.2)
	독성	875(71.9)	342(28.1)
환각제	습관성	833(68.4)	384(31.6)
	내성	684(56.2)	533(43.8)
	부작용	813(66.8)	404(33.2)
	독성	982(80.7)	235(19.3)
	의학적 용도	535(44.0)	682(56.0)
각성제	중독성	608(50.0)	609(50.0)
	습관성	638(52.4)	579(47.6)
	내성	505(41.5)	712(58.5)
	부작용	662(54.4)	555(45.6)
	독성	466(38.3)	751(61.7)
	의학적 용도	403(33.1)	814(66.9)
수면제	중독성	657(54.0)	560(46.0)
	습관성	730(60.0)	487(40.0)
	내성	511(42.0)	706(58.0)
	부작용	320(26.3)	897(73.7)
	독성	252(20.7)	965(79.3)
	의학적 용도	660(54.2)	557(45.8)
신경안정제	중독성	494(40.6)	723(59.4)
	습관성	501(41.2)	716(58.8)
	내성	428(35.2)	789(64.8)
	부작용	447(36.7)	770(63.3)
	독성	439(36.1)	778(63.9)
	의학적 용도	809(66.5)	408(33.5)
흡입제	습관성	596(49.0)	621(51.0)
	내성	579(47.6)	638(52.4)
	부작용	809(66.5)	408(33.5)
	독성	381(31.3)	836(68.7)
	의학적 용도	834(68.5)	383(31.5)
음주	중독성	766(62.9)	451(37.1)
	습관성	883(72.6)	334(27.4)
	내성	874(71.8)	343(28.2)
	부작용	552(45.4)	665(54.6)
	독성	837(68.8)	380(31.2)
	의학적 용도	643(52.8)	574(47.2)
흡연	부작용	219(18.0)	998(82.0)
	독성	1,009(82.9)	208(17.1)
	감염	1,040(85.5)	177(14.5)
	면역력	744(61.1)	473(38.9)
일반적 해독	미성년자 금지	955(78.5)	262(21.5)
	불법, 징역	717(58.9)	500(41.1)
	치료 보호	581(47.7)	636(52.3)

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의 문항에서 '자주 그

렇다' 5.7%, '때때로 그렇다' 32.5%로 약물을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모두 38.2%로 나타났다. '약물을 사용하여 기분이 좋아진다면 한 번쯤 사용하고 싶다'는 문항에 대해서 26.7%의 학생이 약물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자주 그렇다' 5.5%, '때때로 그렇다' 19.9%로 모두 25.4%가 약물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잘못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한두 번쯤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의 문항에서 '자주 그렇다' 3.8%, '때때로 그렇다'는 13.9%로 호기심으로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을 지닌 응답자는 17.7%였다. 14.3%의 학생들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응답하였고, '약물을 사용하여 기분이 좋아진다면 약간의 후유증은 무시해도 된다'는 '자주 그렇다' 3.1%, '때때로 그렇다' 6.8%로 기분 전환을 위해 9.9%의 학생이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성 친구에게 약물을 먹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가질 때가 있다'는 '자주 그렇다' 9.1%, '때때로 그렇다' 11.7%였고, 37.1%의 학생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37.5%의 학생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선생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도덕을 해치는 것이다'라는 문항은 '별로 그렇지 않다' 23.1%, '전혀 그렇지 않다' 48.3%로 나타나 약물사용에 대한 도덕적 관념이 희박한 학생이 71.4%나 되었다.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는 '별로 그렇지 않다' 21.0%, '전혀 그렇지 않다' 52.1%로 모두 73.1%가 약물남용이 불법인 것을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약물을 계속 사용하면 폐인이 된다'는 '별로 그렇지 않다' 14.0%, '전혀 그렇지 않다' 70.4%로 나타나 84.4%의 응답자가 약물의 후유증과 부작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4. 학교 계열별·성별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

표 5. 대상자의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

N=1,217

구 분	자주 그렇다 N(%)	매때로 그렇다 N(%)	별로 그렇지 않다 N(%)	전혀 그렇지 않다 N(%)
인생을 살다보면 약물을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70(5.7)	395(32.5)	402(33.0)	350(28.8)
약물을 사용하여 기분이 좋아진다면 한 번쯤 사용하고 싶다.	69(5.7)	256(21.0)	331(27.2)	561(46.1)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66(5.5)	242(19.9)	345(28.3)	564(46.3)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한두 번쯤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46(3.8)	169(13.9)	327(26.9)	675(55.4)
약물 값이 싸다면 한 번 사용해 보고 싶다.	39(3.2)	89(7.3)	280(23.0)	809(66.5)
친구들과 어울려서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54(4.4)	121(9.9)	311(25.7)	731(60.0)
약물을 사용하여 기분이 좋아진다면 약간의 후유증은 무시해도 된다.	38(3.1)	83(6.8)	263(21.6)	833(68.5)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두 번쯤은 약물을 사용해 보고 싶다.	51(4.2)	112(9.2)	219(18.0)	835(68.6)
이성 친구에게 약물을 먹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가질 때가 있다.	111(9.1)	142(11.7)	219(18.0)	745(61.2)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206(16.9)	246(20.2)	222(18.3)	543(44.6)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선생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201(16.5)	255(21.0)	244(20.0)	517(42.5)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도덕을 해치는 것이다.*	147(12.1)	201(16.5)	281(23.1)	588(48.3)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135(11.1)	192(15.8)	256(21.0)	634(52.1)
약물을 계속 사용하면 폐인이 된다.*	109(9.0)	81(6.6)	170(14.0)	857(70.4)

* 역문항

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는 평균 27.30점, 실업계는 평균 21.84점이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평균 26.08점, 남학생이 평균 24.29점으로 나타났다. 학교 계열별 ($p=0.0001$)과 성별($p=0.017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6794$)(표 6).

표 6. 학교 계열별·성별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의 차이

학교별	학교별			F	p
	실업계	인문계	전체		
성별	M±S.D	M±S.D	M±S.D		
남	21.33 (9.90)	26.48 (10.26)	24.29 (10.42)	성별주효과 F=5.69	0.0172
여	22.20 (10.32)	28.14 (9.80)	26.08 (10.34)	학교별주효과 F=82.64	0.0001
전체	21.84 (10.09)	27.30 (10.06)		상호작용효과 F=0.17	0.6794

학교 계열별로는 인문계는 평균 16.94점, 실업계는 평균 16.23점이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17.76점, 여학생이 평균 15.42점으로 나타났다. 학교 계열별

($p=0.0230$),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p=0.0001$),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학교 계열별·성별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의 차이

학교별	실업계	인문계	전체	F	p
성별	M±S.D	M±S.D	M±S.D		
남	17.24 (8.10)	18.15 (8.12)	17.76 (7.12)	성별주효과 F=40.32	0.0001
여	14.91 (6.05)	15.71 (5.00)	15.42 (5.42)	학교별주효과 F=5.18	0.0230
전체	16.23 (7.37)	16.94 (5.81)		상호작용효과 F=0.03	0.8676

5. 개인적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

학교 성적 수준에 따른 약물남용 지식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01$), 사후검증 결과 학교성적이 '상',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하'라고 응답한 학

표 8. 개인적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

특 성	구 分	지 식				태 도			
		M(S.D)	F	p	Tukey	M(S.D)	F	p	Tukey
학교성적	상	27.13(9.59)				17.60(7.26)			
	중	26.01(10.27)	17.55	0.0001	①>③ ②>③	16.44(5.87)	2.06	0.1284	
	하	22.38(10.59)							
학교생활	즐겁다	25.85(10.43)				16.27(6.49)			
	차차 흥미가 생긴다	25.13(10.62)	3.37	0.0093	①>⑤ ②>⑤	16.53(6.10)	1.09	0.3610	
	생각 없이 다닌다	24.86(10.22)				17.10(6.43)			
	흥미 없다	26.12(10.50)				16.33(6.94)			
	싫다	20.60(9.87)				17.36(7.66)			
비행친구	유	24.97(10.56)	0.12	0.7301		18.40(7.33)	32.08	0.0010	
	무	25.20(10.38)				16.05(6.04)			
존경하는 선생님	유	26.88(10.12)				16.76(5.92)			
	무	24.71(9.92)	11.82	0.0001	①>② ①>③	16.79(7.06)	0.24	0.7905	
	생각해 보지 않음	23.63(10.78)				16.51(6.57)			

생보다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의 흥미도에 따른 지식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0093$). 사후검증 결과 '학교생활이 즐겁다', '학교생활이 차차 흥미가 생긴다'고 응답한 학생의 지식점수가 학교생활이 '싫다'고 응답한 학생의 지식점수보다 높았다. 비행친구의 유무에 따라 태도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0$).

존경하는 선생님의 유무에 따른 지식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사후검증 결과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지식점수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다',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의 지식점수보다 높았다(표 8).

6. 가정 환경적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

가정 환경적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점수는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458$), 사후검증 결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지식점수가 '아주 가난하다'고 응답한 학생의 지식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정 환경적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점수는 부모의 습관적 약물복용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01$), '가정 분위기가 냉담하다'에서 ($p=0.0001$), '가정 생활에 불만이 많다'에서 ($p=0.0001$),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성이 없고 변덕이 심하다'에서($p=0.0001$), '엄하게 자녀를 다스린다'에서($p=0.0412$), '신경 쓸 시간이 거의 없다'에서 ($p=0.0267$)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가정 분위기가 냉담할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성이 없고 변덕이 심할수록 학생의 태도점수가 높게 나타나 약물남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엄격하거나, 너무 바빠서 무관심할수록, 가정생활에 불만이 많을수록 태도점수가 높게 나타나 약물남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

7.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에 따른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의 지식 평균은 26.38점,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의 지식 평균은 23.8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01$).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의 태도 평균은 16.47점이고,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의 태도 평균은 16.87점으로 점수는 약간 높게 나왔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2814$)(표 10).

표 9. 가정 환경적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

특성	구분	지식				태도			
		M(S.D)	F	p	Tukey	M(S.D)	F	p	Tukey
부모의 습관적 약물복용 여부									
예		25.11(9.47)	0.00	19.55		19.34(8.09)	19.55	0.0001	
아니오		25.14(10.51)				16.42(6.26)			
가정의 경제수준									
잘사는 편이다		24.57(10.61)				16.81(7.19)			
보통이다		25.41(10.36)	2.68	0.0458	②>④	16.51(6.33)	1.06	0.3654	
약간 가난하다		25.02(10.31)				17.01(6.41)			
아주 가난하다		20.67(11.53)				1.44(1.17)			
가정 분위기가 냉담하다									
자주 그렇다		23.28(10.67)	1.84	0.1183		20.03(7.10)	5.88	0.0001	①>②
때때로 그렇다		25.17(10.87)				17.28(6.55)			①>③
별로 그렇다		24.73(10.39)				16.46(6.25)			①>④
전혀 그렇지 않다		26.46(9.92)				15.84(6.57)			
가정생활에 불만이 많다									
자주 그렇다		24.52(10.25)	0.62	0.6022		19.32(7.66)	11.06	0.0001	①>②
때때로 그렇다		24.95(10.63)				17.10(6.08)			①>③
별로 그렇다		25.61(10.65)				16.13(6.28)			①>④
전혀 그렇지 않다		24.75(9.61)				15.56(6.46)			②>④
부모의 양육태도									
일관성이 없고 변덕이 심하다									
자주 그렇다		25.84(11.32)	1.49	0.2155		20.98(6.26)	12.90	0.0001	①>②
때때로 그렇다		25.16(10.43)				17.46(6.77)			①>③
별로 그렇다		24.55(10.42)				16.62(6.32)			①>④
전혀 그렇지 않다		25.96(10.25)				15.66(6.33)			②>④
엄하게 다스린다									
자주 그렇다		24.73(10.01)	1.56	0.1971		18.05(7.24)	2.76	0.0412	①>④
때때로 그렇다		25.97(10.33)				16.80(6.16)			
별로 그렇다		24.53(10.46)				16.60(6.23)			
전혀 그렇지 않다		25.37(10.72)				15.70(7.49)			
신경 쓸 시간이 거의 없다									
자주 그렇다		24.11(10.84)	0.68	0.6073		18.54(7.58)	2.76	0.0267	①>④
때때로 그렇다		25.66(10.46)				16.91(6.51)			
별로 그렇다		24.87(10.63)				16.57(6.32)			
전혀 그렇지 않다		25.46(9.96)				16.11(6.32)			

표 10.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에 따른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

약물교육 경험	N	지식			태도		
		M±S.D	t	p	M±S.D	t	p
유	624	26.38±10.02			16.47±6.08		
무	593	23.82±10.67	-4.30	0.0001	16.87±6.88	-1.07	0.2814

8.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에 따른 약물사용 경험

음주를 한 경험을 보면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학

생이 37.8%,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46.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3$).

흡연을 한 경험을 보면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학

생이 20.0%,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의 경우 26.2%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6$).

각성제와 수면제의 경우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약물사용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표 11.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에 따른 약물사용 경험

약물남용 예방 교육 경험			χ^2	p
	유 N(%)	무 N(%)		
비음주	387(62.2)	318(53.6)	8.79	0.003
음주	237(37.8)	275(46.4)		
전체	624(100)	593(100)		
비흡연	499(80.0)	435(73.8)	7.44	0.006
흡연	128(20.0)	158(26.2)		
전체	624(100)	593(100)		
각성제 사용				
유	45(7.2)	37(6.2)	0.45	0.499
무	579(92.8)	556(93.8)		
전체	624(100)	593(100)		
수면제 사용				
유	18(2.9)	25(4.2)	1.58	0.209
무	606(97.1)	658(95.8)		
전체	624(100)	593(100)		

9. 약물남용 예방교육 중요도 인식에 따른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의 지식점수는 평균 26.41점이었고,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대상자의 지식점수는 평균 21.1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1$).

또한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자의 태도점수는 평균 15.37점, 약물에 대한 교

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대상자의 태도점수는 평균 19.3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1$).

즉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약물에 대한 지식점수가 높았고 중요도 인식이 낮을수록 지식점수는 낮았다. 또한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점수가 낮았고,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중요도 인식이 낮을수록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점수는 높았다(표 12).

고찰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51.3%로 나타나 박영숙(1991)의 인천시내 남녀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33.0%, 길은미(1994)의 경남 진주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34.3%, 박충선(1999)의 전남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의 48.8%보다 높았다.

교육시기별로는 초등학교 시절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1.8%로 초등학교 시절에는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제공자는 양호교사가 53.2%로 길은미(1994)의 연구 결과 인문계 78.1%, 실업계 55.0%보다는 낮게 나타났고, 박영숙(1991)의 연구결과 25.9%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방법은 시청각 매체 이용이 65.9%로 대부분의 약물교육이 slide나 VTR 등의 시청각 매체를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2. 약물남용 예방교육 중요도 인식에 따른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의 차이

교육 중요도	N	지식		F	P	태도		F	P
		M	S.D			M	S.D		
매우 중요하다	626	26.41	±10.25			15.37	±6.76		
약간 중요하다	317	25.10	±10.03	10.70	0.0001	16.47	±6.14	7.94	0.0001
그저 그렇다	219	22.56	±10.51			17.43	±6.29		
별로 중요하지 않다	59	21.10	±11.30			19.32	±8.52		
(전체 중요하지 않다 포함)									

공식적 교육 이외에 정보를 얻는 곳으로는 TV 및 라디오가 49.5%로 가장 많았고, 68.1%가 약물남용에 관한 정보를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방송 언론매체를 통하여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길은미(1994)의 연구에서 57.2%, 차현숙(1998)의 연구에서 53.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박충선 등(1999)의 연구에서 72.2%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Brook(1993)의 연구와 Viess 와 Moore(1995)의 연구결과에서 약물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자원으로 TV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문, 잡지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약물남용 예방교육 중요도에 대해서는 77.4%가 약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최순영(1996)의 연구에서 81.4%, 길은미(1994)의 연구에서 인문계 88.1%, 실업계 85.0%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타지역의 연구 결과에 비해 인식도가 낮은 원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약물사용 경험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은 술이었고, 다음으로 담배였다. 음주 경험률은 42.1%로 나타나 장영희(1995)의 서울시내 인문계 중·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84.1%, 길은미(1994)의 연구 74.0%, 대구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현숙(1997)의 연구 83.0%보다 매우 낮았으며, 김소야자 등(1991)의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52.8%, 김숙경(1992)의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남학생 90.2%, 여학생 52.0%보다 낮았다.

흡연 경험률은 23.3%로 나타나 전국을 대상으로 한 주왕기(1992)의 연구에서 28.7%, 진희숙(1994)의 연구에서 25.7%와 거의 비슷하였고, 서울 실업계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승숙(1992)의 연구에서 45.5%, 이현숙(1997)의 연구에서 37.8%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Johnston(1989) 등의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66.4%보다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음주와 흡연이 약물남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김성이 등(1989)은 약물간의 상관관계에서 음주는 흡연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김소야자 등(1991)은 흡연과 음

주를 하는 청소년의 경우 약물사용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이현숙(1997)의 연구에서 음주와 흡연이 7가지 약물(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수면·진정제, 각성제, 환각제, 흡입제, 마약제)사용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ors와 Rojek(1983)은 음주, 흡연은 마리화나, 흥분제 등의 남용과 관계가 깊다고 하였고, 미국의 약물 문제의 시작이 음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문화체육부, 1996)을 생각해 볼 때에 비교적 술이 허용적인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가 바뀌어야 하겠으며, 술, 담배의 구입이 쉽고 광고에 쉽게 접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약물을 처음 사용한 동기를 보면 호기심으로 사용한 경우가 18.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흥경(1990)과 김소야자 등(1991), 강희숙(199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고, 장영희(1995)의 서울시 소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처음 음주, 흡연의 동기가 호기심으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사용한 경우는 9.4%로 외국에서는 친구의 압력으로 술, 담배를 시작하는 것이 30~50%(문화체육부, 1993)인 것과 비교하면 본 연구의 대상 청소년들은 외부 요인보다는 스스로의 요인에 의하여 더 많이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막연한 호기심에 의하여 약물남용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의 평균점수는 인문계 학생 27.30점, 실업계 학생 21.84점으로 인문계 학생의 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길은미(1994)의 연구에서 인문계 26.4점, 김소야자 등(1991)의 학교 청소년 대상 연구결과 22.9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약물남용에 관한 지식의 평균점수는 여학생 26.08점, 남학생 24.29점으로 여학생의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Engs와 Fors(1988)는 지식의 제공은 정보를 한 번 교육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조직된 교과과정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약물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Pirastu(1989)는

학교에서의 약물남용 예방교육은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중등교육과정에서도 체계적인 약물교육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약물남용에 관한 태도의 평균점수는 인문계 16.94점, 실업계 16.23점으로 인문계 학생이 약물남용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길은미(1994)의 연구결과 인문계 13.76점, 실업계 13.31점으로 인문계가 높게 나타난 점은 같으나 태도점수가 인문계, 실업계 공히 본 연구에서 높게 나타나 약물남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의 평균점수는 남학생 17.76점, 여학생 15.42점으로 남학생이 약물남용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숙련(1995)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전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 볼 때에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에 따른 약물사용 경험을 보면 약물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우 음주와 흡연, 수면제를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흥경(1990)의 연구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담배 및 본드의 두 가지 약물을 적게 사용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의 지식점수(26.41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의 지식점수((21.10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길은미(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인천시 남, 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영숙(1991)의 연구 결과 대중매체를 통하여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약물들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약물들에 대하여 교육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남용 예방교육 중요도 인식에 따른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점수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의 태도점수(15.37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학생의 태도점수(19.32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길은미

(1994)의 연구 결과 인문계, 실업계 모두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 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청소년 약물남용의 태도는 청소년의 개별 문제가 아닌 학교와 가정, 사회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개별적 접근이 아닌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보건 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태도를 형성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경상북도 소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약물남용에 관한 지식 및 태도를 조사, 분석하여 이들 청소년들에게 약물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보건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대상자는 경상북도 23개 시, 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인문계 13개교 735명, 실업계 10개교 482명을 총화 무작위 표출하였으며 1999년 3월 5일에서 3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PC-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test, ANOVA, Tukey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51.3%였고 초등학교 시절에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학생은 거의 없었으며, 교육제공자로는 양호교사가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방법으로 시청각 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받은 학생이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대부분이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많이 사용한 약물을 순위별로 제시하면 술 42.1%, 담배 23.3%, 각성제 6.7%, 수면제 3.5%, 흡입제 1.6%, 신경안정제 1.5%, 마약 0.9%, 환각제 0.5%였다. 약물을 처음 사용한 동기는 호기심으로 사용한 경우가 18.1%로 가장 많았다.

2.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의 평균점수는 인문계 학생(27.30점)이, 실업계 학생(21.84점)보다 더 높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01$), 여학생(26.08점)이 남학생(24.29점)보다 더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72$).

3.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의 평균점수는 인문계 학생(16.94점)이 실업계 학생(16.23점)보다 더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230$), 남학생(17.76점)이 여학생(15.42점)보다 더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1$).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점수는 학교성적이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p=0.0001$), 학교생활이 즐겁다고 응답한 학생이($p=0.0093$),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p=0.0001$)이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가정의 경제 수준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아주 가난하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지식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p=0.0458$)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약물남용과 관련된 제 특성에 따른 지식의 차이에 있어서는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에 있는 학생이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이 높았으며($p=0.0001$),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이 높게 나타나($p=0.0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점수는 비행친구 유무에 따라($p=0.0010$), 부모의 습관적인 약물복용 여부에 따라($p=0.0001$)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가정 분위기가 냉담할수록($p=0.0001$), 가정생활에 불만이 많을수록($p=0.0001$).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성이 없고 변덕이 심 할수록($p=0.0001$), 엄하게 다스릴 때($p=0.0412$), 신경 쓸 시간이 거의 없을 때($p=0.0267$),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p=0.0001$), 태도점수가 높게 나타나 약물남용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강영미 외 21인. 실무중심 지역사회 간호학. 도서출판 성담, 1998
- 고홍경. 서울시내 일부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길은미. 일부 남자고등학생의 약물남용에 관한 지식 및 태도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성이.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체육부, 서울, 1989
- 김소야자.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체육청소년부, 1991
- 김소야자, 현명선, 성경미, 공성숙.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1993;23(3), 487-503
- 김숙경. 청소년의 약물사용과 비행실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문화체육부. 청소년 백서, 1996
- 문화체육부.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 연구, 1996
- 민병근, 김현수. 청소년의 약물남용. 신경정신의학 1987; 4:605-613
- 박영숙.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물사용에 대한 지식정도와 교육 요구도에 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박충선, 은종영, 정미영. 청소년 약물남용의 의식 실태 및 예방 전략에 대한 연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별책 1999;29(1)
- 이가연. 중학생의 약물남용 실태 및 관련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이계연.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 및 대책.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길홍, 이재광, 나철, 박두병, 김현수, 민병근. 청소년 비행의 약물 상관 변인 분석. 한국의과학 1985;130-147
- 이숙련. 부산시내 중·고등학생의 약물에 대한 태도와 남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현숙. 대구시내 고등학생의 약물남용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주왕기. 청소년의 약물남용현황. 보건소식 1991;82:8-10
- 본드, 마리하나, 필로폰. 박영률출판사, 1995
- 진희숙. 청소년 흡연, 음주 및 약물남용의 실태와 요인- 서울 지역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차현숙.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여중생들의 약물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천경애. 서울시내 일부 국민학생들의 약물 사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조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최순영. 고등학교 여학생의 약물남용 실태와 약물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최승숙. 실업계 여자 고등학생들의 흡연 실태와 태도 및 지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최한곤.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연구: 대구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새마을 지역개발 연구 1992;15:107-125
- Connell PH. Addiction in adolescence, some comments about its diagnosis, treatment, and vulnerable groups. Community Health 1794;6:29-33
- Coutts LC, LK Hardy. Teaching For Health: The Nurse as Health Educator. Churchill Livingstone, London, 1986
- Dorn N, Thompson A. Evaluation of drug education in the longer term is not an optional extra. Community Health 1976;7:154-161
- Elliot MA.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Newbury Park, 1985
- Engs RC, Fors SW. Drug abuse hysteria: The challenge of keeping perspective. Journal of School Health 1988;58:26-28
- Farquhar JW. Community education For cardiovascular health. Lancet 1977;ii:1192-1195
- Flay BR, Koepke D. Six-year follow-up of the first Waterloo School smoking prevention trial.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89;79(10):1371-1376
- Fors SW, DR Rojek. The social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adolescent druguse patterns. Juvenile Drug Education 1983;13:212
- Fors SW, Jarvis S. Evaluation of a peered drug abuse risk reduction project for runaway/homeless youths. Journal of Drug Education 1995;25(4):33
- Fredisdorf M. Alcohol and drug abuse prevention in Wisconsin public schools. Journal of School Health 1989;59:21-24
- Goodstadt MS. School-based drug education in North America: What is wring? What can be done? Journal of School Health 1986;56:278-281
- Havighurst RL.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David Ma Kay, NewYork, 1972
- Johnston LD, Malley PM Bachman JD. Illicit drug use, smoking, and drinking by America's high school student, college student, and young adults, 1975-1988.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ublication NO. 89-1638.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89
- Kandel D et al. Sequence and stages in patterns of adolescent drug abuse. Arch Gen Psychiatry 1975;32:923-932
- Newcomb M. Mothers influence on the drug use of their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983;19:714-726